

투데이 칼럼

효과적인 언어규칙

언어는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 시대에는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말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화자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규칙을 알아보자.

첫째, 단순성이다. 쉬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전을 찾아보아야만 알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은 자기식대로 해석하거나 더 심한 경우는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생각이 단순하고 분명하게 제시 될수록 듣는 사람은 이해가 쉬워진다.

둘째, 간결성이다. '한 마디로 제압하라'는 말도 있듯이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한다. 세단어로 할 수 있는 말을 네 단어로 늘려 쓰지 말아야 한다.

최고의 광고 제작자들은 이러한 적절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한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고 짧은 것이 긴 것을 이기고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을 이기고 때



김 양 옥

한국 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로는 시각적인 것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기기도 한다.

셋째, 신뢰성이다. 말에 진실성이 부족하거나 그 말이 일반적인 사실, 환경, 인식과 모순되면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어느 물품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 절제되지 못한 언어로 과장된 약속들을 늘어놓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이며, 당신이 곧 당신의 말이다."라는 교훈이 있다. 신뢰를 쌓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말하고 그 후에야 정말로 그 사람이 되어 자신이 하겠다고 한 일을 행하여야 한다.

넷째, 일관성이다. 기업들은 브랜드 성공을 위해 메시지의 일관성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인다는 규칙이다. 메시지의 반복은 정치연설에서도 중요하다.

다섯째, 참신성이다. 효과적인 언어는 낡은 개념에 새로운 정의를 부여할 때 탄생한다. 충격적이거나 놀랍지 않으면 금방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린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에게는 낡은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놀라움과 흥미로움을 조합되면 누구라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탄생한다.

이런 때는 종종 유머가 곁들여지기도 한다.

여섯째, 리듬감이다. 말의 소리와 짜임새는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만큼이나 확실하게 기억에 남아야 한다.

"언어의 리듬은 그 자체로 음악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리로 각인 시켜야 한다.

일곱 번째, 흡입력이다. 흡입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독려하고 지켜세우고 촉구하는 것이다.

메시지에는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담겨 있어야 한다. 행동을 촉구 할 때도 흡입력 있는 메시지를 활용하면 좋다.

여덟 번째, 시각화이다. 대중에게 먹히는 말은 무엇보다 듣는 사람이 언어를 통해 선명히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스피치에서 시각과 과정을 일으키는 단어가 바로 상상이다.

수많은 사람들 각자에게 맞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암시를 주는 유일한 단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화, TV, 광고판, 인터넷 등을 통해 너무 많은 자극을 받고 있다.

이제 스피치를 무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하고 생각하는 스피치를 하자.

사설

전북은 광주와 전남의 들러리가 아니다

정부가 전북을 확대하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 쓸쓸하다. 현 정부도 역대 정부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전북 도민의 요구에 공감한다는 말이 실속 없는 덕담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매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판소리나 가 말이다. 군산 경제가 몰락한 지 오래 됐지만 정부쪽 고위 관계자들에게 급할 게 하나도 없는 번방의 일로 무시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해찬 여당 대표의 발언이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전북도가 오래 전부터 말해온 군산 살리기가 전북도민 전체의 요구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태양광 사업만으로는 어림 턱도 없다. 그러므로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정부는 전북을 호남권으로 묶어서 광주와 전남 다음 순서의 대우를 하고 있음이 역력하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말은 없어도 군산형 일자리라는 말은 없어도 하는 지적이다. 그리고 제3금융도시 지정 건도 그렇다. 서울과 부산에서 반발하자 입장 경리를 마무르고 있는데 매우 섭섭한 일이다.

전북도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정부 측 인사의 발언에 따라 다른 것들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강조하거나 도민들은 지금 감정이 상해 있다.

도민의 희망인 군산살리기가 좌절된다면, 그리고 전주의 제3금융도시 지정이 좌절된다면, 도민들의 분노가 폭발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전북이 오래도록 광주와 전남의 들러리 신세에 걸단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하면 매우 낙후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전에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반복하거나 발전 보폭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지역의 발전은 미미하기 이룰데 없다.

도내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거북이 걸음을 보이고 있는 중에 군산 살리기와 전주 혁신도시의 제3금융도시 지정 건도 그렇다. 서울과 부산에서 반발하자 입장 경리를 마무르고 있는데 매우 섭섭한 일이다.

독자제언

안전띠 착용은 최고의 보험이다

2018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지만 여전히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이 소홀한 실정이다.

"법을 몰랐다거나 귀찮아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망률은 착용할 때보다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미 착용하여 사고충격시 뒷좌석 탑승자가 앞좌석을 충격할 경우 앞좌석 탑승자의 사망률은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삼성화재 교통연구소가 서울 주요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승용차 4741대를 조사한 결과 운전석(96.2%)과 조수석(92.0%)의 안전띠 착용률은 높은 편이었으나 뒷좌

석의 경우 36.4%에 불과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 시 3만원의 범칙금을 그리고 동승자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현장과태료를, 어린이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6만원의 현장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도로교통법 중요 개정사항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축정벌음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범칙금 4만원), 자전거 승차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 있다.

이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사항이다. 의무는 당연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띠 착용은 비용도 들지 않으며 매우 간단하다. 안전띠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험이란 사실을 잊지 말자.

서성원 고청경찰서 모양지구대 경위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고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하노이 티셔츠 매장, 북미 정상 티셔츠 인기



오는 27~28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1일 베트남 하노이의 한 티셔츠 매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디자인된 셔츠가 진열돼 있다.

일자리 13만 개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북도는 일자리 13만 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저번에 일자리 종합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전에 없이 거창한 거라서 도민 모두의 관심이 쏠렸던 게 생각난다. 202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1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 까닭이다. 전북의 예산이 7조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렇다. 전북도가 2022년까지라고 한정하긴 했지만 그때까지 8조원 시대를 턱걸이 하고 있을 공산도 없지 않은 것이다.

전북도는 저번의 발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전북도의 13만 개 일자리 창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내 젊은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있다. 확실한 취직이 바로 그것이다. 전북도가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려내고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만들어주어야겠다. 해마다 연초 때면 크게 부른 희망이 연말 즈음이면 빠진 종성이 되고 있다. 기대한 것과는 반대로 암울한 현실만이 속제로 남는 까닭이다. 그래서 도내 젊은이들은 전북 지역을 떠나려는 정서가 여전한

다.

전국의 경제 성장률 도표를 보면 우리 전북의 경우가 처져있다. 그래프가 지난 십수 년 동안 전국 평균 아래 쪽에서 들쭉날쭉한 모습이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헬조선이라는 말에 이어 휴수저라는 말과 이생망이라는 신조어가 자기 조롱처럼 자리를 잡은 지도 오래되었다. 그래도 지방정부인 전북도 또한 책임이 크다.

여기 다시 강조하거나 저번의 거창한 발표를 전북도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 미션의 책임을 공기업과 민간 기업도 나누는 가운데 진정성을 가지고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는 당부이다. 그리고 열려되는 것이 있는데 일자리 만들기가 숫자 채우기 같은 것으로 변질돼선 곤란하다. 그것은 올바른 해결이 아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뚜렷하다. 젊은이들은 보수도 괜찮고 고용도 안정된 직장을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